

청 원 서

○ 청 원 자 :

여주군의회 의장 안치호외 10인

○ 청 원 명 : 현재 기념일인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

○ 청원이유

- 우리 여주군은 우리 민족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모신 유서깊은 고장으로써 우리 민족의 긍지이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후손으로서 소명을 다하는데 앞장서고자 하는것임.
- 훈민정음 반포 551돌을 맞이하여 모음과 자음 28자로 모든 문자의 표기가 가능하고 문자 발달사상 최고의 표음 문자이며 세계의 언어 석학들이 인정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이기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었으며,
- 이를 인정하여 유네스코가 세종대왕 탄신일을 “세계 문맹 퇴치의 날”로 정하여 유엔산하 약 200여개국에 “빛의 날”로 선포하였음.

- 그러나 정작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할 우리 국민은 한글을 홀대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 정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다양한 문화행사를 했던 한글날을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 일반 기념일로 격하시켰는가 하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한민국 법률은 한글이 아닌 한문을 전용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현재 기념일로 되어 있는 “한글 날”을 국경일인 “한글 절”로 지정하여 우리글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와 한민족의 위대한 일을 계승하며 찬란한 문화꽃피울 구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1997 년 3 월

청 원 자 : 여주군의회 의 장 안 치 호
 부의장 이 은 형
 의 원 이 광 호
 의 원 한 정 길
 의 원 신 승 균
 의 원 문 영 달
 의 원 이 연 호
 의 원 김 강 배
 의 원 윤 태 남
 의 원 차 상 규
 의 원 이 창 기

